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6.14.(월) 14:10,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질병관리청)

6월 14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1,183만 명으로 전 국민의 23%가 1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3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5.9%가 접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1차 접종을 77.1%, 70세 이상 어르신은 78.4%, 그리고 현재 접종이 진행 중에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56.6%가 접종을 진행하여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1차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0대에서, 60~74세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총 587만 7,000명이 접종을 받으셨고, 이번 주 일주일간 예약자가 240만 명이 추가적으로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은 6월 19일날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06만 회분이 공급되었고, 현재는 약 재고량을 204만 회분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60~74세 이상 어르신에서의 예약 초과자가 36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최대한 접종 종료일인 6월 19일까지 추가 예약된 어르신들에 대해서 접종일정 등을 조정해서 잔여백신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접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또 의료기관별 사정에 따라서 사전예약자가 접종을 하지 못하신 사례가 생길 경우에 7월 초에 모두 접종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는 구체적인 그런 접종일정 등을 결정해서 개인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철저하게 접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노인시설 입소·이용·종사자들 140만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접종 간격이 3주 간격이므로 지난 3주간 1차 접종에 집중을 했었고 앞으로, 이번 주를 포함해서 앞으로는 2주~3주간은 2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 접종에 동의하셨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일날 접종을 못 하시거나, 그 이후에 접종을 추가로 하기로 그렇게 원하시는 어르신들께서도 6월 말까지는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1차 접종을 맞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더나 백신 접종계획입니다.

6월 1일날 국내에서 처음으로 모더나 백신 5만 5,000회분이 도입되었고,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이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30세 미만의 보건의료인, 예비의료인을 포함해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30세 미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입사한 신규 입사자 그리고 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되는 예비보건의료인을 포함해서 초도물량을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이어서 가용한 물량 범위 내에서 접종대상 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병원에서의 접종은 대한병원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되고 있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해군 함정을 활용하여 백신접종이 어려운 낙도 및 무의도서의 30세 이상 주민 6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 접종은 처음 시도되는 해상 순회접종이며, 해군의 함정과 의료진의 지원으로 전라남도의 도서지역, 약 25개의 도서지역의 주민에게 1회 접종으로 가능한 얀센 백신을 이용해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백신 오접종 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기준으로 총접종은 1차, 2차를 포함해서 1,479만 건에 대한 접종이 진행이 되었고, 현재까지 접종오류로 신고된 건수는 10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접종오류의 105건의 세부내용을 보면 접종대상자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90건, 대부분이 3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종시기에 대한 오류가 10건, 그리고 접종용량에 대한 오류가 5건으로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 접종오류는 대부분 접종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것들로 지자체를 통해 오접종 방지를 위한 긴급안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접수 그리고 예진, 접종 시에 접종대상자와 접종의 종류 그리고 접종의 용량을 단계별로 확인해서 접종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접종 발생 시에는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고 보건소는 경위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상반응이 우려되는 경우는 피접종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한 오접종 재발 우려가 있거나 접종 위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단은 하반기에는 더 많은 백신과 더 다양한 백신이 공급될 예정으로 의료계와 협의해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접

종민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오접종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또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관합동조사 등을 시행하는 등 안전접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반응 신고 현황에 대한 주간 단위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예방접종은 1,422만 건 정도가 접종이 되었고, 이상반응의 신고건수는 4만 6,000여 건이 신고가 돼서 신고율은 현재 0.33%입니다.

신고 사례의 94.9%는 근육통, 두통과 같은 일반 이상반응의 신고였으며, 5.1%에서는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율은 여전히 여성이 조금 더 높고 젊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현상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에서는 가장 낮아서 0.19%를 신고하셨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0.41%, 화이자 백신이 0.2%, 그리고 얀센 백신은 0.08%이나 아직은 접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 현황은 신고 당시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85명 그리고 화이자가 153명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후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는 얀센 백신을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1만여 명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상반응 당일 또는 그다음 날 그리고 접종 2일 차에 어떤 이상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1만여 명에 대한 문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열감, 주사부위 통증과 같은 국소반응이 21% 정도가 있었다고 신고를 하셨고요, 보고를 하셨고요. 근육통이나 피로감 같은 전신반응도 22.3%가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 중대한 이상반응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1만여 명에 대한 조사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의료기관에서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08% 정도의 신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조사반 사례판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6번의 피해조사반 회의가 진행이 돼서 사망 및 중증 사례 408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211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중증 사례 3건과 아나필락시스 사례 63건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제16차 피해조사반 회의자료는 보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중증,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와 또 혈소판감소성혈전증에 대한 부분이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나필락시스 우려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접종 후 15분 내지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 여부에 대해서 관찰하고, 발생 시에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접종 후 4일 이후에서 4주 내에 호흡곤란이나 흉통 또는 지속적인 복부통증, 팔·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2일 이상 지속된 심한 두통이 있고 또는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524.3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서 9.4%가 감소하였습니다.

권역별로는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유행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남과 충청권에서는 음식점

그리고 사업장,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으로 인해서 발생이 증가하였고, 호남과 강원권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과 제주권역에서도 전주 대비 감소한 상황입니다.

해외유입 사례는 하루 평균 22.6명 정도로 전주보다는 약간 증가한 상황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확대되면서 치명률과 사망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500명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장 그리고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일상 속 감염, 또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지역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등 위험요인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47.2%로 대부분이 가족, 지인, 동료 그리고 소규모의 집단시설을 이용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감염경로가 조사 중인 사례도 지난주에는 1,077명으로 28%로 계속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요한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접촉을 통한 전파 확산이 증가하고, 특히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지

역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염이 취약한 사업장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집단발생이 많이 발생한 노래방, 유흥시설 등은 종사자에 대해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통해서 조기발견 및 방역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집단발생의 유형을 보면 유증상 시기에 집단시설을 이용하여 전파가 확산되거나 조기에 진단이 안 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출근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약사회, 의사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도권의 중학교, 직업계고, 고등학교의 등교가 확대되며, 스포츠경기장, 대중문화공연 등의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사람 간의 접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그리고 유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받기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예방접종 오접종 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의료계 또 지자체와 협력해서 현장점검 그리고 교육 그리고 오접종 사례에 대한 조사와 대책 등 마련을 철저히 해서 접종현장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안전접종이 되도록 의료계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예약으로 늘어날 60~74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력해서 현재 잔여백신으로 이번 주에 최대한 접종을 하는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불가피하게 접종이 연기되시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방역당국에서는 철저하게 7월 초에 예방접종이 모두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개 전남 도서지역의 주민 예방접종을 위해 해군 한산도함이 해상 순회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접종을 위해서 배를 타고 의료기관을 두 번이나 찾아야 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얀센 백신을 활용해서 해상에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해군과 전남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한 접종이 될 수 있게끔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해서 접종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받은 사전질문 다섯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EMA 안전성위원회에서 모세혈관누출증후군을 앓았던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또 모세혈관누출증후군이 새로운 부작용으로 추가돼야 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 부작용은 어떤 치료를 받으면 되는지,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 없이 예전 상태로 회복이 가능한 질환인지 궁금하다는 질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모세혈관누출증후군은 인구 100만 명당 몇 명에게 나타나는지, 또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최근에 유럽의 EMA 안전성위원회에서 이 모세혈관누출증후군이라는 굉장히 드물지만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특히 이 부분은 부작용으로 등재하도록 그렇게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부작용에 대한 권고나 안전성 서한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세혈관누출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금기증으로 관리를 해서 접종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또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누출증후군 치료에 대해서는 대증치료를 통해서 장기 부전이나 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합병증 예방 대증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매우 드문 질환이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질환입니다. 현재 EMA 자료에 의하면 7,800만 건을 접종을 해서 14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 중의 6건을 심층 분석하였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100만 명 접종당 0.2명이 안 되는 굉장히 드문 발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접종하고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드물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극희귀질환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2020년부터 등록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등록된 국내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식약처와 의료계와 협의해서 금기증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상반응 신고 시의 조사·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측의 실수로 얀센 백신 접종자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다거나 또 권고 접종량을 지키지 않는 오접종이 나면 피접종자는 병원이나 방역당국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 외에 보상을 받는 등 다른 대응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질문 있습니다.

<답변> 현재 예방접종을 맞고 어떤 이상반응이든 이상반응이 있으면 이상반응 신고를 하고, 또 이게 인과성이 있는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국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보상을 먼저 국가에서 선보상을 하고요.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위탁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접종 등으로 인해서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국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국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 개인과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청장이 비공개로 접종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 주셨고, 또 1차 접종과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미국 출장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카운터파트가 아니었는지, 라고 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지난주에 문자로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요. 4월에 저희가 미국에 대한 모더나사와 MOU 그리고 미국 국립보건원과의 LOI 등의 협력에 대한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미국 출장을 갈 경우에는 입국 2주 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불확실한 상황 중에서 출장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2차 접종에 대한 주기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의 범위는 4주에서 12주가 허가범위로 되어 있고,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접종의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8주에서 12주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2차 접종의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허가범위 내에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예외적인 사례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원칙하에 2차 접종을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네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모더나 백신 5만

5,000회분 접종은 내일 시작이 될 수 있는지, 또 아니라면 언제 시작이 되는지, 또 왜 늦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7월 접종은 지금까지처럼 화이자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그 외 백신들이 추가로 다량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상황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현재 모더나 백신 접종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상급종합병원의 30세 미만의 보건의료인, 예비의료인을 포함해서 접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병원협회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초회 물량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처음으로 국가출하승인을 품질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종료가 되면 백신에 대한 배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병원별로 대상자에 대한 명단자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출하승인이 정해지고, 또 병원별 대상자 규모가 조금 더 명확해지면 6월 중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마 병원별로 접종을 시작하는 날짜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6월 중에 접종을 다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7월 접종 관련해서는 현재 최종 3분기 접종계획을 정리하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날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백신 수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목요일날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77일 만에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차 접종이 많이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을지, 아니라면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확진자 수에 영향을 준

다고 봐야 할지 당국에 의견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저희가 1차 접종률이 23%이고 대부분이 60대 이상 어르신과 또 보건의료기관이나 소방·경찰과 같은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23% 정도의 1차 접종률로는 지역사회 전체 전염을 차단하는 데는 부족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경우에도 1차 접종률이 60%에 달하는 데도 인도 델타형 변이로 인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지,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진행하고 또 위험시설인 의료기관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과 같은 집단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최근에 병·의원이나 이런 시설을 통한 집단발병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에 따라서 위중증 사례도 150명 내외로 유지를 하고 있고, 사망자는 이번 주 같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 정도로 위중증이나 사망자가 감소하는 효과, 저희가 상반기 접종 목표인 위중증·사망률 예방에 대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파 차단과 전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9월달, 적어도 70% 1차 접종까지는 진행이 돼야 어느 정도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3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아마 주말의 영향도 있고, 또 최근에

계절적인 이유로 굉장히 많은 환기를 시행하고 있어서 밀폐된 환경들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지자체에서 열심히 현장점검과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한 그런 노력들이 같이 담겨 있는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보내주신 질문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님 질문입니다. 초과예약과 관련돼서, 방역당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과 관련해 수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이번 주부터 60세 이상 예약자들에게 접종할 백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문제가 없다면 현장에서는 백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렇다고 또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 있습니다.

<답변> 저희가 계속 브리핑 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60대~74세 어르신들 접종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접종률, 동의율보다도 더 높은 80%가 넘는 동의율을 보여주셔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조금 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이 접종을 하면 좋았겠지만, 어느 정도 초과되는 물량에 대한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한 36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번 주에 접종을 진행하면서 남아 있는 잔여백신 그리고 LDS 주사기를 이용한 추가적인 접종 물량 등을 최대한 60대 이상 예약자 어르신들에게 접종하도록 의료계와 협력하고 있어서, 수요일 정도까지 최대한 접종을

진행하고 수요일 저녁 기준으로 다시 한번 부족량에 대한 부분, 초과량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접종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7월 초에 예방접종 일정을 잡아서 접종을 진행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사회자) 백신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버넷뉴스 김재율 기자님 첫 번째 질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초과 예약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로 네 번째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열네 번째 순서로 수정해 주신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소형 기자님이 기존에 단체톡 문자에 공유된 예약인원을 14일에서 19일 치를 더하면 예약된 인원이 288만 4,000명인데 청장이 방금 설명을 할 때 일주일간 예약자가 240만 명이 추가적으로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라고 설명한 부분에서 숫자에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자료에도 보면 14일~19일 예약자가 24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의 차이는 어떻게 나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담당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김기남 접종기획반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오늘 0시 기준으로 6월 14일~1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예약되신 분이 240만 명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문자로 공유된 예약인원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추정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 화이자라든지 얀센 접종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이상반응과 관련되어서 두 분 기자님 질문 있습니다. JTBC 박민규 기자님 화이자 백신접종 관련된 이상반응 질문 주셨습니다. 육군 병장이 화이자 백신접종 엿새 뒤에 숨진 사례와 관련하여서 접종과의 인과성을 어떻게 확인할 계획인지 질문 있습니다.

오늘 부검이 진행됐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족분들은 '백신을 안 맞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하고 있으시고,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뒤 숨진 장병의 경우에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가 안 됐던 선례도 있습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먼저, 고인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또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학조사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반응조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박영준 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 해당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 돼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6월 7일날 화이자 백신접종을 하고, 6월 13일인 어제 해당 부대에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확인된 이후에 급히 응급처치를 하고 의료기관으로 후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신고는 어제 됐고, 신고 이후에 질병관리청 관할 지역 지자체 그 다음에 군당국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학조사 진행 중이고 부검도 군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젊은 연령이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검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검 결과가 확인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에 대해서 평가·심의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관들과 신속하게 정보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한겨레신문 최하얀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코리아헤럴드 기자님도 연관된 질문 있어서 함께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얀센 백신 접종 뒤 13일에 숨졌다.'라고 보도된 30대분에 대한 이상반응 신고 이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도 대구에서 10일 얀센 접종 후 사망 신고된 분은 혈액 관련 질환을 앓고 계셨던 것이 맞는지, 맞다면 어떤 혈액 질환인지 확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인과성 조사는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함께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상반응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6월 10일날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그다음 날 어지러움증, 구토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6월 13일에 안타깝

게도 사망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기저질환은 있었고, 혈액 관련 질환이다.'라고 현재 기초조사서에는 적혀져 있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좀 더 정확한 진단명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진단명이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건도 갑작스럽게 사망한 부분에 있어서 부검이 진행 중이고, 부검 결과와 같이 종합해서 인과성을 평가하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아홉 번째 현장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성태 기자님 질문입니다. 전북 부안군의 한 의원에서 얀센 백신을 과다투여 받은 다섯 분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신지, 또 접종오류 중에 접종 용량 5건인데, 인천 남동구 병원에서 40여 명에게 정량의 절반가량을 투여한 것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그 부안군 의원에서 과다접종하신 5명의 상태는 '현재 4명은 일반병실에서 입원해서 치료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1명은 퇴원하셨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상반응 발생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병원에서는 용량을 과소접종을 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와서 현재 모든 접종자에 대한 접종 용량에 대한 부분을 해당 보건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40여 명 정도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에 확인되면 그 오접종이나 이상...

접종오류 건에 대해 통계를 반영하고, 또 해당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통계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일곱 번째 질문,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신 오접종 건수가 105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접종된 인원도 105명이라는 말인지, 몇 명에게 오접종이 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오접종은 사람 명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오접종 사례의 대부분이 접종대상자를 잘못 판단한 경우가 90건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4월 12일 정도부터는 30세 미만에는 접종하지 않도록 안내를 했는데, 이것을 생년월일을 계산하거나 만 연령을 계산할 때 약간 착오가 있어서 30세 전후의 연령층에게 접종이 진행된 건수가 90건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런 오류는 최소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접종시기, 이른 접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0건 정도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접종용량에 대한 부분이 5건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모더나 백신접종 관련돼서 두 분 기자님 질문 있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KBS 우한솔 기자님, 모더나 백신접종은 구체적으로 이번 주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지 질문 있습니다.

<답변> 제가 아마 국가출하승인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와 또 병원별

로 접종일정들이 상이하기 때문에요. 시작 시기는 저희가 확정이 되면 별도로 안내드리고 또 취재나 이런 부분 필요하면 협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한 번째 질문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문입니다. 모더나 5만 5,000회분은 상급종합병원 45곳에서 만 30세 미만 보건의료인에게 접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접종 못 하는 만 30세 미만 보건의료인의 접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보건의료인에는 병원의 일반행정 직원들도 포함되는지 질문 있습니다.

<답변> 현재 모더나 초도물량은 5만여 건 정도로 물량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초도물량이어서 저희가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나 백신효과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도 협조를 구하는 목적도 같이 해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나머지 종합병원과 병원도 이어서 계속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의 접종대상자는 보건의료인과 예비의료인, 의과대학생, 간호학과생 등 환자를 직접 병실에서 봐야 되는 예비의료인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일반행정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오늘 자 자료를 보면 화이자 접종 대상자 중에 군 30세 미만의 접종률이 100%로 나오는데 30세 미만 군인 대상 1차 접종은 완료가 된 것인지, 또 완료가 됐다면 언제 완료가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30세 미만의 군인 대상자가 한 41만 명 정도 되고 있는 상황

이고요. 동의 절차를 거쳐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가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현재 통계에는 접종자 숫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그냥 통계를 드리다 보니까 100%로 표시가 됐지만 26일까지 접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통계 부분은 조금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세 번째 질문 경향신문 조형국 기자님 질문입니다. 1,183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또 당초 예약된 14일까지, 14일에 68만 7,000명, 15일에는 56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는다, 라고 가정을 하면 15일이면 1,300만 명 접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목표 달성시점이 보름 앞당겨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번 주까지도 접종예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도 이번 주가 240만 명이 예약되어 있고, 또 화이자 접종 75세 이상 어르신들도 2차 접종과 일부 1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고, 얀센 백신도 이번 주까지 한 17일 정도까지는 90만 명 예약자들의 예약이,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군 부대에서 지금 30대 미만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주까지도 굉장히 많은 양의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주 안에 아마 1,300만 명 정도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통계, 이를 통계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여섯 번째 질문 주신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일 기준으로 51만 명이었던 초과 예약자 수가 이날 기준으로는 36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LDS 주사기를 통해서 열흘 동안 15만 명분을 추가로 접종했다고 이해하면 될

지 질문 있습니다. 남은 5일 동안 LDS로 추가 접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같이 문의 보내주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4일날 안내드릴 때는 한 50만 명 정도가 초과된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의료계가 잔여접종 그리고 LDS를 이용한 백신접종의 예약자 어르신들을 많이 조정을 해 주셨고, 또 얀센 백신에 대한 잔여백신도 어르신들에게도 접종 가능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현재 어제 기준으로는 36만 명 정도가 초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남은 기간 동안에 각 지역별 또 의료기관별 예약 상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의료계와 협력해서 최대한 예약자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의 접종 상황을 보고 수요일 정도, 수~목 정도의 접종 상황을 보고 초과 예약자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별로 명단을 정리를 해서 접종일정 조정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백신접종 관련돼서 추가로 확인해 달라는 내용 있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백신 오접종 받은 피접종자가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른 보상은 일체 받을 수 없다는 말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지금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 범위는 이상반응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어서요. 이상반응 이외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워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백신접종 관련돼서는 하나 더 질문드리고, 방역 관련된 질문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조형국 기자님, 접종용량, 오접종 5건이 각각 언제, 어디서 또 어떤 백신을 누구에게 접종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오늘 통계에서 말씀드린 접종용량에 대한 오류 5건은 얀센 백신 5건, 부안군 얀센 백신 사례 5건이 포함된 통계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방역과 관련된 질문 네 가지 있습니다. 다만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또는 격리 관련된 부분은 중수본으로 상세한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두 번째 질문 주신 TV조선 유지현 기자님 질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또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있습니다.

<답변> 현재 저희가 격리면제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격리면제 제도의 기준, 그러니까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관을 통해서 접종증명서 그다음에 격리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격리면제 제도의 트랙을 통해서 격리면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증명서에 대한 확인과 격리면제 기준에 해당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실버넷뉴스 김재율 기자님, 거리두기와 관련된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수도권에서 교회 예배시간에 현시점에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교회에서 30명이 모일 수 있다면 그 교회에서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 후에 2주가 지난 분이 20명이, 2차 접종 후 또 2주가 지난 분이 10명이 있다면 전부 몇 명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지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답변> 이것은 금방 계산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7월부터 1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의 이용제한 인원에서 제외한다.'라는 그런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춰서 추계를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CNN의 권혁 기자님 질문입니다.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외국인이 국내 거주 외국인 신분의 직계가족 방문을 할 때에 격리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고 하면 거주 비자를 가진 외국인만 해당인 건지, 아니면 모든 외국인이 대상인지 궁금하다, 질문 있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외교부나 중수본하고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주 비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건 중수본하고 확인해서 문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열다섯 번째 질문, 국민일보 송경모 기자님 질문입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또 면역 회피력을 자연형 바이러스 또 알파 변이와 비교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계속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델타 변이인 경우에 백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영국 변이...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영국 변이에 대해서는 89.5% 정도의 효과가 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인도 변이주에 대해서는 87.9%, 이것은 두 번 접종을 다 완료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발표 내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는 영국 변이인 경우에는 74.6% 정도, 그리고 영국... 인도 변이, 델타형 변이인 경우에는 두 번 접종했을 때 59.8%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게 최근까지의 발표된 그런 자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 자료들이 좀 더 취합되고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파력에 대해서는 현재 영국 변이주도 초기 유행주보다는 상당히 전파력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최근에 영국 발표에 의하면 델타형 변이가 알파형 변이, 영국 변이보다는 좀 더 전파력이 높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서요. 아무래도 델타 변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역학적인 특성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델타형 변이가 해외유입으로 주로 발생

하고 있고, 지역감염이 1건 정도, 1~2건 정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진행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응답은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위기소통팀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장 마무리 발언 듣고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 발생이 500명대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감염 유행을 전체 차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가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예방접종과 방역의 두 가지 수단을 철저히 진행해야만 코로나19의 극복이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충분한 환기,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기 등의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최근에 마스크 착용이 많이 경각심을 낮아졌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실외 마스크도 7월부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실내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은 이번 주 60대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방역적인 상황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고은미, 오늘 처음으로 김정우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끝>